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8.31.(화) 본 브리핑 시	배포일시	2021. 8. 27.(금) 09:00
담당과장	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 (044-215-4130)	담당자	강재원 사무관 (kangjaewon@korea.kr)

「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 국회제출

- 정부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「2022년 정부예산안」의 첨부서류로 「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를 9.3.(금) 국회에 제출할 예정

◇ 조세지출예산서란,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, 세액공제·감면,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(국세감면)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('20년 실적, '21년·'22년 전망)을 항목·기능별로 집계·분석한 자료로서,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

-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

① ('20년 : 52.9조원) '19년 49.6조원 대비 3.3조원 증가

- 국세감면율은 14.8%로 법정한도^{**} (13.6%)를 1.2%p 초과

* 국세감면율 = 국세감면액 / (국세수입총액 + 국세감면액)

** 국세감면율 법정한도(권고치) =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

- 코로나19대응 세제지원^{*}(+1.2조원) 및 고용증대세제 강화(+0.5조원) 등으로 인한 감면액 증가

*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(+0.6조원),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(+0.6조원)

② ('21년 : 55.9조원) '20년 52.9조원 대비 3.0조원 증가 전망

- 국세감면율은 14.3%로 법정한도(14.3%)와 동일한 수준

- 코로나19대응 세제지원^{*}(+1.9조원)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^{**}

*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상향(+0.7조),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세액감면(+0.5조) 등

** 국세수입증가율(9.6%)이 국세감면액 증가율(5.6%)을 4.0%p 상회

③ ('22년 : 59.5조원) '21년 55.9조원 대비 3.6조원 증가 전망

- 국세감면율은 14.2%로 법정 한도(14.8%)를 0.6%p 하회 전망
-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,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국세 감면액은 증가*하나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**

*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(+1.2조),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(+0.3조) 등

** 국세수입증가율(7.9%)이 국세감면액 증가율(6.4%)을 1.5%p 상회

<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>

구 분	2020년(실적)	2021년(전망)	2022년(전망)
○ 국세감면액 (A)	529,357억원	559,366억원	595,208억원
○ 국세수입총액 ¹⁾ (B)	3,036,717억원	3,327,157억원	3,588,658억원
○ 국세감면율 [A/(A+B)]	14.8%	14.3%	14.2%
○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²⁾	13.6%	14.3%	14.8%

1)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(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)

2)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(권고치) =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

<참고> 국세감면 한도

- ☐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「국가재정법」상 강행규정이 아닌 '권고사항'으로서 규정

*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

- 제88조(국세감면의 제한) ① 기획재정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(이하 "국세 감면율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*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※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=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